

‘民族’ 개념의 형성과 ‘言文一致’

강은진*·조재형**

- 목 차 -

- I. 서론
- II. ‘민족’ 개념의 형성과 유입
- III. ‘언문일치’의 전개
- IV.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民族’이라는 개념의 형성 과정과 한국으로의 유입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민족’ 개념이 ‘言文一致’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에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우리의 언어적 근대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언문일치’ 운동은 우리 민족이 사용해 오던 고유의 언어를 이용하여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정신과 정서를 확립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언문일치’ 前에는, 봉건사회에서 ‘文’은 오로지 상위계층만의 소유물이었지만 ‘언문일치’는 극소수 중심의 사회를 대다수의 구성원 중심의 사회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문일치’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언어로서 사상과 감정을 공유하게 되면서 ‘민족’을 상상하게 되었고, 이렇게 상상된 ‘민족’을 기초로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할 수

* 제 1저자,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의 ‘언문일치’는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소수의 지식인들로부터 전개되었고,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우리의 ‘언문일치’ 운동은 국가의 형성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전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주제어 : 민족, 언문일치, 개념사, 언어적 근대화, 언어의 규범화

I.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民族’이라는 개념의 형성 과정과 우리 사회로의 유입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민족’ 개념이 ‘言文一致’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에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우리¹⁾의 언어적 근대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민족’ 개념과 ‘言文一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근대’의 개념일 것이다. 본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대’는 봉건적인 계급 구조가 무너지고 형식적 평등에 기반한 민족이 형성되는, 즉 ‘네이션스테йт(Nationstate)’의 형성이 이루어지던 시기를 가리킨다.²⁾

1) 본고에서의 ‘우리’는 한국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한국 이전의 한민족 국가를 가리킨다. 또한 이 국가의 구성원과 그 구성원에 의한 사회도 가리킨다.

2) 장은진·조재형(2018: 30-31)에서는 다음과 같이 ‘근대’를 규정하고 있다.

“‘근대’는 중세의 봉건적인 계급 구조가 무너지고 형식적 평등에 기반한 국민이 형성되는, 즉 국민 국가의 형성이 이루어지던 시기를 가리킨다. 이러한 국민국가의 형성에는 라틴어로 대표되던 신성한 언어로부터의 지역어(vernacular)의 문화와 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지역어의 보급, 종교적 공동체의 붕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략) 변방의 언어로 취급되던 이 지역어들은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제한된 틀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 간의 동질성과 공동체 자체가 갖는 주체성 등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언어적 근대화란 어떤 언어가 타 언어와 구별되는 자기에 대하여 인식하고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네이션스테йт’의 탄생은 근대 초기에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었다고 할 수 있다.³⁾

그러나 이 근대 초기의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國家, 國權, 國民’ 등의 새로운 개념들의 胎動을 지켜보았으나, 이전의 제국인 중국과 새로운 제국인 일본 사이에서 아직 제대로 된 근대 국가를 출범시키지 못했고, ‘국권 상실’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마주하면서 그러한 개념들이 곧바로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언어·역사·정치·경제’ 등 모든 사회적 담론의 최전선에 ‘민족’ 개념을 배치시켰다.

한편, ‘민족’이라는 개념은 우리 안에서 自生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족’이라는 용어는 서양어 ‘nation’ 또는 ‘volk’의 翻譯語⁴⁾로, 大韓帝國期에 유입되었다.⁵⁾ 즉, ‘민족’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고, 그 개념이 형성된 것은 다분히 근대적인 현상인 것이다(강은진·조재형, 2018: 31). 따라서 근대적 개념인 ‘민족’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유입 및 정착을 하였는지, 그 개념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언어생활과 관련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의 언어적 근대화 과정⁶⁾을 확인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⁷⁾

본고에서의 ‘근대’의 개념과 ‘언어적 근대화’의 개념은 강은진·조재형(2018)의 그것과 동일하다.

- 3) 이러한 ‘네이션스테йт’의 형성에는 종교적 신성어인 라틴어로부터 ‘지역어(vernacular)’가 분화하고, 인쇄술의 발달에 따른 지역어의 보급과 종교적 공동체의 붕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4) 박찬승(2010: 27–29)에 따르면, ‘nation’은 협통이나 출생을 의미하는 라틴어 ‘natio’에서 나왔다. ‘natio’는 원래 인종이나 종족과 같은 혈연관계에 기초를 둔 하나의 혈연 집단을 의미하였다. ‘volk’는 ‘민중, 민족, 국민, 인민’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독일어였으며 역사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보인다. ‘nation’은 주로 이념을 공유하는 정치적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였고, ‘volk’는 언어·역사 등을 같이하는 문화적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였다.
- 5) 박찬승(2010: 82)에서는 『皇城新聞』이나 『大韓每日申報』 등의 신문에서 ‘民族’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대한제국 시기에 ‘민족’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등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6) 이병기(2015: 136)에서는 코젤렉의 방법론을 통해 근대적 개념은 의미의 민주화·시간화·이데올로기화·정치화라는 네 가지 범주를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는 언어에도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언어적 근대의 핵심 문제에는 각각의 민족어가 고전적 언어의 세계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이연숙, 2012: 49)가 중심에 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언어적 근대화를 ‘어떤 언어가 타 언어와 구별되는 자가에 대하여 인식하고 공식적으로 규범화하여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7) 본고에서는 ‘민족’ 개념이 영향을 미친, 가장 큰 언어적 변화가 ‘言文一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편, ‘言文一致⁽⁸⁾’란 보통 ‘文(글말)’과 ‘言(입말)’을 일치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말하는 행위와 쓰는 행위는 그 수단·양식·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야(이연숙, 2005: 323)⁹⁾ 실제로 ‘文’과 ‘言’을 완전히 일치시키기는 어렵다. 가령, 실제 대화를 있는 그대로 적는다고 해서 그것을 ‘언문일치’의 문장으로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¹⁰⁾ ‘언문일치’란 실제 발화를 그대로 글로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言文一致’의 ‘言’과 ‘文’이 무엇이고 이들을 일치시킨다는 행위가 당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언어적 근대화 과정을 세밀히 고찰하기 위해, ‘민족’ 개념의 형성 과정과 우리 사회로의 유입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언문일치’ 과정과 그 의미를 알아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民族’ 개념의 형성과 유입

‘민족’에 대한 다양한 定義는 1990년대 이후로는 Anderson(1983/2018: 25)에서 제시한 ‘상상된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모아지는 듯하다.¹¹⁾

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 8) 김채수(2002: 19)에서는 ‘言文一致’라는 표현이 간다 다포하라(神甲孝平, 1885)에서의 “언어와 문장을 일치시켜 보려면 작성한 문장을 낭독해, 듣는 자로 하여금 즉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듣는 자로 하여금 즉시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그것이 곧 언문일치가 된다.”라는 문장을 통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 9) 사전에 원고가 준비된, 다시 말해 글말(문어)이 선행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일상 발화는 우선 문장의 구획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그것들도 대부분 문법적으로 따진다면 비문인 경우가 많다. 입말(구어)로는 문장 차원의 논의 자체가 쉽지 않다는 말이다.
- 10) 傳寫者が 실제 발화를 그대로 옮길 때의 언어 사실은 그 전사자가 어떠한 전사 체계를 따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입말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도입된 전사 체계 역시 입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언문일치체’ 또는 ‘언문일치’ 문장에 대해서 역시 ‘말과 글을 일치시킨 문체/문장’이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문일치체’라는 것이 나름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효과를 가진 특수한 글쓰기 양식이자 문장의 규범일 수 있다는 시각이 필요해지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김병문, 2013: 68-70).
- 11) 본고에서도 ‘민족’에 대한 Anderson(1983/1991)의 견해를 수용하여 논의를 전개함을 밝힌다.

Anderson(1983/2018: 27)에서는 ‘민족’을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된 정치공동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민족’은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형성되는 정신적 공동체이다. 인쇄술의 발달로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상대방과 자신을 하나의 공동체로 상상하기 시작하였고,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감각이 이들을 ‘민족’의 개념까지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은 ‘구성원의 소속감, 소속 의지, 공동체 의식’ 등을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¹²⁾¹³⁾

既述한 바와 같이 개념으로서의 ‘민족’은 우리 사회에서 형성된 개념이 아니라 서구 사회로부터 들어온 개념으로 보인다.¹⁴⁾ 따라서 서구 사회에

12) ‘민족’에 대한 정의는 크게 객관설과 주관설의 두 가지 시각에 의해 대조적으로 개념화 된다. 객관설은 언어와 문화, 역사, 전통 그리고 혈연 등 객관적 요소들을 바탕으로 민족이 성립되고 이러한 객관적 요소들의 차이로 인해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다고 본다(이대희, 2015: 47). 이에 대해 Hobsbawm(1989/1994: 21,41)에서는 객관적 정의는 “그 정의들에 부합하는 많은 집단 중 단지 일부 성원만이 언제나 ‘민족’으로 기술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가 항상 발견될 수 있다.”고 비판하였고, 또한 현재 존재하는, 국가 없는 민족이나 다민족 국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국가가 민족과 일치하지 않고 모든 민족이 국가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기술한 바 있다.

한편, 주관설에 따르면 민족 구성원들의 의식, 즉 구성원들 각자의 민족과의 일체감이나 민족에 충성하려는 의지에 의해 개인은 민족에 속하게 된다. 그런데 구성원의 소속 의지, 소속감 등을 영토, 혈연, 언어 등의 객관적 요소들로 형성되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민족에 대한 Anderson(1983/1991)의 견해가 더 큰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순수한 객관적, 주관적 정의들은 ‘민족’ 개념을 완전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대희(2015: 47)에서는 주관설에 따르면 민족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이지만 객관설에 따르면 민족은 귀속적이어서 운명의 문제라고 기술하고 있다.

13) Anderson(1983/1991)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사회에서의 ‘민족’ 개념의 형성 과정을 통해 ‘민족’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영토와 관련된 ‘대중 민족주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언어와 관련된 ‘종족언어 민족주의’, 언어와 문화의 강요와 관련되는 ‘권주도 민족주의’가 그것이다. 권주도 민족주의는 대중 민족주의와 종족언어 민족주의의 출현을 지켜본 왕조에 의해 주도되고 강요되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앞의 두 민족주의와는 차이점을 갖는다.

14) 이대희(2015: 46)에서는 민족이 번역이라는 점에서 ‘민족’ 개념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첫째, 대부분의 근대적인 개념이들처럼 민족 역시 우리가 스스로 번역한 용어가 아니라 19세기 말에 일본에서 nation의 번역어로 등장한 다음 다시 중국을 경유해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번역어이다. 따라서 번역어 민족은 nation 고유의 의미에 일본과 중국의 당시 시대상이 반영되어서 굴절된 채로 수입될 수밖에 없다. 둘째, 번역어로서의 민족은 우리 역사와 전통에 존재하지 않는 신조어이므로 이 용어를 과거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유사한 용어들과 비교하고 이를 통해 민족의 개념을 이해하려는 시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중략)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거나 그 용어가 새로운 개념으로 정착하는 서구의 사회적 맥락이 누락된 채 단어로서의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서의 ‘민족’ 개념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로의 ‘민족’ 개념의 유입 및 정착 과정과 그 의의를 논하고자 한다.

1. ‘민족’ 개념의 형성 과정

20세기 중반까지 서구 사회에서의 ‘민족’ 개념 형성에 대한 입장은 다양하지만, ‘민족 = 근대적 개념’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강운진·조재형, 2018: 36-37).

Hobsbawm(1992/1994: 30-35)에서는 『스페인 왕립학술원 사전』(*The Dictionary of the Royal Spanish Academy*)의 여러 판본을 조사한 결과 1884년 이전 판에는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 민족 그리고 언어 등이 실려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¹⁵⁾

이러한 사실은 Hobsbawm(1989/1994)에서 근대 민족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것의 기본적인 특징을 근대성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물론 ‘nation’ 또는 ‘volk’와 같은 용어는 근대 이전부터 사용되었으나 이들 용어가 ‘종족적 단일체’라는 오랜 의미를 떠나 ‘정치적 통일성과 독립’을 강조하는 근대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은 깊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근대 이전 시기에 종교와 신분 등으로 区劃된 유럽의 봉건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 전체가 서로에게 동질감이나 유대감, 일체감 등을 느낄 수

번역어를 이해하려는 시도에 따른 결과로 정치적 용어를 시대적 맥락과 무관하게 이해하려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족(nation)이라는 용어가 근대적 의미로 정착하는 근대 서구와 족류나 동포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조선은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민족이 족류 또는 동포와 단어의 의미상으로는 유사할지라도 사회과학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맥락을 무시하고 유사성을 비교할 수는 없다.셋째 번역어는 신조어일지라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위에서 거론된 예에서 보듯이 우리의 역사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즉 기존의 의미망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또한 번역어는 번역된 단어나 음절의 의미 자체, 민족의 경우에는 ‘민(民)’과 ‘족(族)’의 음절이 결합된 단어이기 때문에 한자어 ‘민’과 ‘족’의 의미가 부가되어서 통용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의 민족 개념에는, 민족 개념의 발생지인 서구의 nation의 개념에 이 개념이 수용된 이후의 우리의 근대사가 반영되어 있고 게다가 번역된 단어의 음절의 의미가 부가되어 있어서 민족 개념의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본고에서는 상술한 이대희(2015)의 기술을 수용하고, ‘민족’을 가급적 자생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근대화 시기의 서구 개념이 유입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5) 이 조사는 Lluis García i Sevilla(1979: 50-55)에서 수행한 것이다.

없었고, 종교적으로 상상된 공동체¹⁶⁾들은 큰 세력을 유지했음에도 중세 말기 이후 점점 쇠퇴해 갔다. 이는 비유럽 세계에 대한 탐험이 활발해지고, 라틴어로 대표되던 신성한 언어의 권위가 점점 격하되었기 때문이었다.¹⁷⁾

이러한 종교의 몰락과 함께 봉건 사회를 지배한 왕조국가들은¹⁸⁾ 과학 및 항해술의 발달로 인한 다른 문명의 발견과 인류발달의 역사에 대한 세속적 이론의 대두로 그 합법성을 상실해가면서 점차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 서구 사회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Anderson(2018: 66-67)에서는 오래된 세 가지 근본적 관념, 곧 종교적이고 특권적인 언어, 다른 인간과 구분되던 왕, 인간과 세계의 기원을 동일하다고 인식하는 시간성(숙명)이 지배력을 잃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적 변화와 사회적·과학적 발견, 커뮤니케이션 발달과 함께 서구 사회에서 ‘민족’을 ‘상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종교와 왕조의 몰락과 더불어 ‘민족’ 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인쇄술 발달의 산물인 신문 등의 매체와 그러한 매체의 기반을 이루는 ‘언어(vernacular)’였다.

종교 개혁의 성공으로 라틴어가 무너지고 관료 계층 내부에서 편의상 사용되고 있던 지역어(vernacular)¹⁹⁾들은 세력어(languages-of-power)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²⁰⁾ 16세기 초 인쇄술의 발달은 신문이나 잡지 등의 생산

16) 서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카톨릭 교회를 가리킨다.

17) 라틴어의 몰락은 언어에 의해 통합된 공동체들이 점차 분해되고, 複數化가 되고, 영토화가 되는 거시적 과정을 보여준다(강은진·조재형, 2018: 44).

18) 당시 왕권의 정통성은 왕국의 주민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하사되는 것이었고, 주민은 ‘시민(citizens)’이 아니고 ‘백성(subjects)’일 뿐이었다(Anderson, 2018: 44).

19) 강은진·조재형(2018: 34)에서는 ‘지역어’의 ‘지역’의 의미를 ‘region(보통 정확한 경계나 국경과 상관 없는 지방, 지역)’보다는 ‘territory(한 국가·통치자가 다스리는 지역, 영토)’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20) Hobsbaw(1989/1994: 86-90)에서는 다음과 같이 Anderson이 제시한 세 가지 이유를 인용하면서 원형민족적 결합에 언어가 중심 요소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엘리트 문어나 행정적 언어가 상호 소통하는 엘리트의 공동체를 만든다. 이 공동체는 특정한 영토 국가의 영역 및 토착어 지역과 일치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더 큰 상호 소통의 ‘민족’ 공동체의 모델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둘째, 공동어는 자연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특히 인쇄를 통해 활자화가 될 때 실제보다 더 항구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새로운 고착성을 갖는다.

셋째, 지배층 및 엘리트의 공식적 또는 문화적 언어가 교육과 기타 행정적 기제를 통해 대개 근대 국가의 실재적 언어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전(前) 민족주의, 전(前) 문자 시대에는 보통 사람들의

및 유통을 야기하는데, 이런 매체는 라틴어가 아닌 각각의 지방어로 표기되었고, 이것을 향유한 독자들은 다른 지방 활자어(活字語)를 읽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유대를 상상하고 의식하게 되었다. 즉 활자화된 ‘지방어’가 민족의 경계를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Hobsbawm(1989/1994: 26)에서는 “민족이 국가와 민족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지적하였다.²¹⁾

정리하자면 서구 봉건 사회는 종교와 신분으로 구성원들이 구분되어 있었기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었다. 즉, 근대 이전의 역사에 ‘국가’는 있었으나 ‘민족’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종교와 왕조의 몰락은 또 다른 공동체를 상상하게 만들었는데, 이때 그러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활자화된 ‘언어’였다. 즉 ‘言(vernacular)’과 ‘文(Latin)’이 분리되었던 언어적 문제점을 타파하고 ‘言(vernacular)’과 ‘文(활자어)’을 일치시키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言(vernacular)’을 사용하는 타지역과 그곳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自己를 인식하게 되고, 동일 言文을 사용하는 지역의 집단과 그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민족’ 개념이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가 붕괴되고 근대 사회로의 전환기에서 근대적 개념의 ‘민족’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민족’ 개념의 유입²²⁾

서구 사회의 ‘민족’ 개념의 형성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하지 못한 듯하다.

언어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언어와 더불어 증가하지 않으나 언어는 국가와 더불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21) Hobsbawm(1992/1994: 24-26)에서는 ‘민족 문제’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민족’이 지칭하는 실체보다 ‘민족주의’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민족주의’가 표상하는 ‘민족’은 전망적 인식이 가능하지만, ‘민족’의 실체는 사후적으로만 인식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분석을 위해서는 민족주의가 민족에 앞선다. 민족이 국가와 민족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22) 2.2의 내용은 강은진·조재형(2018: 38-43)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정리한 것이다.

조선 후기, 朝鮮은 明의 ‘華夷論’을 받아들이면서 ‘小中華’를 自處하지만, 清의 중원 정복으로 세계관의 혼란을 겪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은 中華文明의 맥이 끊겼고, 朝鮮만이 이것을 정통으로 계승했다고 여겼는데, 이는 타의적으로 중화사상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임형백, 2012: 111–139).

言及한 바와 같이 서구사회에서의 ‘민족’ 개념의 형성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他者’와 구별되는 ‘自己’의 인식인데, 朝鮮은 ‘中華主義의 解體’를 통해 비로소 中國과 구별되는 自己를 인식하였고,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²³⁾

그러나 러일전쟁(1904–1905) 동안에 大韓帝國의 지식인들이 보인 ‘東洋主義的 觀點’은 아직 타민족과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滿洲난 卽東亞之門戶也오 滿洲失則我韓有危하고 支那裂이면 俄人之勢力이 必大張東洋하야 將伸臂而南하야 欲併吞日本島國矣리니 是난 滿洲一路가 開俄人併吞之門하야 日本之安危存亡이 亦係滿洲之得失할니 日本之不得不與俄一戰者-又此也오. 夫此韓日清之三國이 相與有脣齒之勢하야 關係重大뿐더러 今日本이 其全國人口生命產業經濟等諸般利益을 悉資於韓清兩國而若被俄人之侵奪沮遏則非但其國產民命이 陷墜於困難沮敗之域矣라 東洋之黃種全族이 將至殄滅之境矣리니 日本之不得不與俄一戰者-又此也오

「日不得不戰」, 『皇城新聞』, 1903. 10. 02.²⁴⁾

위의 글에서는 러시아가 만주를 점령하면 우리와 清, 日本 모두가 위기

23) Andre Schmid(2002: 156)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세정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민족주의 사상은 본질적으로 민족의 독특한 정체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충동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제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수 세기에 걸친 문화적 교류를 신중하게 재검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자본주의적 세계 체제 내부의 근대적 이데올로기에 점차 가까이 가고 있다는 정후이기도 했다.

24) 백동현(2001: 159)에서 재인용.
백동현(2001: 159–163)에서는 『황성신문』에 나타나는 시대인식을 통해 민족의식과 東洋主義의 思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에 처하게 되어 ‘東洋의 黃人種’ 전체가 멸망당할 위험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東洋人種’과 같은 표현에서 당시 우리 사회가 아직 동양 단위로부터의 分立性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東洋主義的 思考가 사라지는 것은 日帝가 러일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우리에 대한 식민 지배의 야욕을 드러내면서부터이다.²⁵⁾

한편 우리 사회에서의 ‘民族’ 개념의 초기 수용 과정을 살펴보면 서구 사회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²⁶⁾

往一所謂征服하던 白人民族의 勢力を 翳看컨대 數十年間에 長江大河
와 恰如하야 동방에 衰衰流入하니 時局大勢의 所趣는 不可測이로다 …西
曆千八百四十年來로 東方民族이 白人民族에게 所被한 損害를 左에 概舉
하건대…

『皇城新聞』, 1900. 1. 12.²⁷⁾

백동현(2001: 163-164)에 따르면 위의 1900년 1월 『皇城新聞』에서 처음으로 ‘東方民族’이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白人民族’과 함께 사용된 것을 보

25) 러일전쟁 전에 청일전쟁(1894-1895)이 발발하였으나 이 전쟁은 중국으로 대표되는 구문명이 서구를 받아들인 일본의 신문명에 패배한 사건으로, 이는 지금까지 문명의 나라였던 중국을 야만국으로, ‘倭’라고 불리며 경멸반란 일본을 문명국으로 바꿔버린 일대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을 야기한 사건에도 ‘東洋人種’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두 국가의 지위가 변동되는 계기였을 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동양인종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때까지도 우리 안에서 근대적 민족의식이 완전히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6) ‘민족’이라는 용어는 중국을 통해 우리 사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은 1899년 ‘nation’의 일본어 번역인 ‘民族’이 梁啓超의 『東籍月旦』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박찬승(2010: 65)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는 1907년 이후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梁啓超의 『飲冰室文集』에 실린 ‘민족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박찬승(2008: 99)에서는 구한말의 지식인들이 ‘민족’이라는 말을 수용한 통로로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 등의 신문을 지목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는 1900년부터 ‘민족’이란 용어가 보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梁啓超의 ‘민족론’이 우리 사회에 소개되기 이전의 ‘민족’이란 용어의 등장에 대해 이를 자생적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1900년 이전의 우리 사회에서 ‘민족’이란 용어가 사용된 흔적을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어디까지나 ‘민족’이란 개념은 본질적으로 타 사회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27) 이 예문은 백동현(2001: 163)에서 제시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밑줄은 본고에서 설정하였다.

았을 때 이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주민집단이 아닌 서양과 대비되는 동양 ‘人種’을 지칭한 것으로, ‘民族’과 ‘人種’을 동의어처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민족의 범위를 동양 삼국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東方民族’은 아직 민족의식이 동양단위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韓日議定書가 강제되는 등 우리를 향한 일본의 침략성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민족의식은 동양주의적 관점에서 점차 분리되기 시작한다. ‘主權守護’라는 목적은 한자 문화권으로서 공유하던 ‘초국가적 문화주의’를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야기했고, 이때부터 ‘민족’이라는 용어가 한반도 주민집단에 한정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백동현, 2001: 165-169).²⁸⁾²⁹⁾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1904년 이후로 ‘민족’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정착되고, 그 개념이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開化期와 日帝強占期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 ‘민족’ 개념은 점차 도구화된다. 국권 상실의 위기 속에서 대한제국 황실은 급격히 약화되고 충성과 애국의 대상은 ‘황제’에서 ‘민족’으로 바뀌게 되었다. 1905년 이후 활발했던 계몽운동은 황제권이 약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는데, 이 때 지식인과 일반인들은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권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즉, 근대적 의미의 ‘민족’이 형성되어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일제강점기, 즉 국가가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國民’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고, ‘국민’을 대신하여 ‘민족’은 국권회복의 주체로서 기능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³⁰⁾³¹⁾

-
- 28) ‘동양주의’로부터의 분리는 ‘동양의 황인종’과는 구별되는 한반도의 주민집단, 즉 민족공동체 집단 만이 남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29) 백동현(2001: 165)에 따르면 『皇城新聞』에서는 한일의정서 체결에 대해 일본에 보호권을 넘겨준 것으로 인식하였고 일본의 ‘보호’ 운운에 대해 屬國化 정책이라고 파악하였다.
- 30) 김현숙(2004: 118)에 따르면 개화기 ‘민족의 도구화’가 계몽을 위한 것이었다면, 일제강점기의 ‘민족의 도구화’는 독립을 위한 것이었다.
- 31) Hobsbaw(1989/1994: 137)에 따르면 1880-1914년의 민족주의는 세 가지 주요한 점에서 이전의 민족주의와 다르다. 첫째, 후기 민족주의는 자유주의 시대의 민족주의의 중심 요소인 ‘규모의 원칙 (threshold principle)’을 포기했다. 그리하여 1880년 이후 자신들을 ‘민족’으로 생각하는 민족 집단은 모두 한결같이 민족 자결을 외쳤다. 민족 자결은 결국 자기의 영토 내에 하나의 분리된 주권 독립 국가를 가질 권리를 말한다. 둘째, 잠재적인 ‘비역사적’ 민족이 이처럼 늘어난 결과, 종족과 언어가 잠재적 민족성의 중심적, 나아가 결정적이거나 심지어 유일한 판단 기준마저 되었다. 그러나 세 번째 변화는 이제 점차로 많아지고 야심적이 된 비국가적 민족운동들보다는 기존의 민족국

서구의 ‘민족’은 自己의 言語 사용과 思想의 공유를 통해 自生的으로想像되었고, 대내적 불평등을 해결하면서 완성된 것이라면, 우리의 ‘민족’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식인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사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즉 ‘민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어’가 주목되기 시작한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부강한 나라로 등장한 서구 열강은 우리로하여금 더 이상 漢字가 새로운 지식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³²⁾ 즉 이제 漢字는 다른 모든 표기법과 똑같은 수준으로 격하된 것이다(Andre Schmid, 2002: 179–185).

이런 상황에서 ‘민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우리 사회에 유입되었고, ‘言’과 ‘文’을一致시켜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³³⁾ 그러한 상황에서, 타문화와 구별되는 순수한 우리의 문화를 복원하기 위한 움직임 중 가장 강하게 나타난 것이 한글을 ‘국문(國文, national script)’으로 격상시키는 것이었다.

III. ‘言文一致’의 전개

서구 사회에서의 언문일치 운동은 르네상스 시기(13–16세기)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³⁴⁾, 1700년대 말의 프랑스 대혁명 등을 거쳐 18세기 말에

가 내의 민족 감정에 끼친 영향을 말한다. 19세기의 마지막 20년간 실제로 발명된 ‘민족주의’는 민족과 국기(國旗)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였다.

32)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 漢字는 지식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상실하였고, 민족의 독립에 필요한 새롭고 유용한 지식을 생산하는 데 어떤 특권도 부여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漢字를 대체할 효율적인 문자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러한 漢字의 몰락을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

33) 서구의 언문일치의 목적과 우리의 그것은 다르다. 후술하겠지만 서구 사회의 언문일치 운동의 핵심은 자신들의 말로 자신들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것이었다. 반면 우리의 언문일치는 지식을 통한 부국강병이었다.

34) 김체수(2002: 34–35)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1265–1321)는 문학을 라틴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의도 하에 『俗語論』을 짜필하였다. 이는 그 당시까지 이탈리아에서는 라틴어가 文語였고 口語는 이탈리아어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후에 점차 확대되어 작품 짜필에 있어서 이탈리아어가 점차 라틴어를 대체해갔다. 단테의 이러한 의도는 문어와 구어를 분리하여 바라보게 하

와서야 비로소 완성되었다.³⁵⁾ 즉, 서구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은 르네상스 이후 약 600여 년에 걸쳐 라틴어로 대표되는 신성한 언어의 자리를 지역어(vernacular)가 차지하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라틴어를 버리고 지역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서부터 지역어 문법서를 편찬하고 지역어 사전을 편찬하는 등 그 지역(나라)의 언어를 통일하고 규범화하는 방향으로 언문일치 운동이 전개되었다. 지역어는 신문과 잡지 등의 매체를 통해 급속도로 공동체에 전파되었고, 지역어를 통해 전달된 다양한 소식들은 공동체 내의 동질감을 형성하게 하였다. 즉, 시민들의 의식 속에 ‘민족’이 형성됨으로써 하나의 집단을 묶는 언어의 도구성이 강조된 것이다(김채수, 2002: 42-43).

서구 사회의 언문일치 운동의 핵심은 자신들의 말로 자신들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여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言文一致’는 ‘自己’의 인식과 ‘民族’의 확립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모두가 글을 통해 사상과 감정 등을 공유할 수 있으려면 글을 쓸 때에 일정한 규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서구 사회에서의 근대적 의미의 언문일치는 단순히 말하는 그대로를 傳寫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규범화’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구 사회에서 언문일치 운동이 빠르게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는데에 있어서 중요한 배경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라틴어와 지역어의 동일 문자 사용이라는 문자 환경이었다. 자신들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말들을 표현하기 위해 라틴어 표기에서 지역어 표기로 대체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라틴어와 지역어는 모두 표기 수단으로 음소문자인 로마자를 사용했기에 라틴어 표기에서 지역어 표기로의 변환에 있어서 표기의 문제가 존재하지

는 계기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전까지 문어로 사용하던 라틴어를 버리고 자기 민족의 말로 사상과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35) 김채수(2002: 34-37)에 따르면, 르네상스 시기의 인간들은 神과 대통하는 성직자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신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입장은 견지하려는 人文主義者の 입장에서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記述하려 했다. 반면 18세기의 유럽인들은 봉건사회를 구성하는 성직자, 기사, 귀족 등과 같은 한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평등한 한 시민의 입장에서 자신의 말로 자신의 문제의식을 기록하려 했다.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서구의 언문일치 운동은 동아시아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아시아의 언문일치 운동은 언문이 일치된 서구의 문장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시작하였다. 이때 동아시아에서 표기의 도구로 사용해오던 ‘漢文’은 서구의 라틴어와 같은 존재였다. 즉, ‘漢文’이라는 중심적 언어에 비해 조선이나 일본어는 주변적 언어, 즉 일종의 지역어로 인식되었고, 따라서 조선어와 일본어 또한 근대화를 겪으면서 ‘漢文’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근대적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아시아 언문일치 운동은 서구와는 문자 환경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다. 즉, 서구 사회는 라틴어와 지역어 모두 표기 수단으로 표음문자인 로마자를 사용했기에 표기의 변환에 있어서 표기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우리와 일본의 경우 漢字가 표음문자인데 반해 한글과 かな(假名, 가나)는 표음문자라는 점에서 漢文이나 漢字를 한글이나 かな로 표현하고 해석해 내야 한다는 공통적인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언문일치 운동은 일본의 언문일치 운동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³⁶⁾³⁷⁾

36) 중국의 경우는 조선·일본과는 달랐다. 고전시대 중국은 ‘文’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직접적인 벌화에 가까운 형식이 아닌 象, 즉 형상이 의미를 활기하며 지배력을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자는 의사 전달 기능의 효용성 측면에서 표음문자에 비해 뒤떨어지는 측면이 있었고, 만청(晚清) 시기에 이르러 그 기능적 의구심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초 가장 뛰어난 민족주의자로 추앙되었던 장타이엔(章太炎, 1868~1936)은 章太炎(1996)에서 한자를옹호하며 언어(입말)는 단지 선을 이룰 수 있고 문자는 면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입말은 일회적이고 일의적이지만 글말은 만 가지 의미를 함축할 수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그럼에도 한자의 ‘형상성’은 근대화와 더불어 배제의 대상으로 치부된다.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는 ‘소리를 군대의 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매체로 보았고, 루쉰(魯迅, 1881~1936)은 중국이 근대화의 과정을 완수하지 못하고 멸망한다면, 그것은 중국에 ‘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후 한자 개혁은 한자의 음성문화화를 지향하였다(이보경, 2003: 16~24). 본격적인 언문일치 운동, 즉 백화문(白話文) 운동은 ‘5·4 신문화 운동’이 발발하면서부터이다. 후스(胡適, 1891~1962)는 유학 중 중국 문자의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표음문자와 표의 문자 사이에 위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한자가 뜻을 전달하는 기능을 상실했으며, ‘산글인 구미 언어에 못 미치는 ‘반은 죽은 글’이라고 평하였다. 구어로도 사용하는 말과 글에서만 사용하는 말이 혼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어체인 ‘백화’로 글을 쓰자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이보경, 2003: 45~50).

즉, 중국의 경우 한자의 라틴어 사용 방안이 나올 정도로 음성문화화에 대한 요구가 커으나 완전히 다른 언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입말과 글말의 형식적인 차이가 크다는 점이 문제가 되면서 새로운 자모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유지하되 형식에 치우친 문어체에서 일반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본과 우리의 언문일치의 과정과 그 양상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의 언문일치

이연숙(2005: 323-324)에 따르면 일본에서 言文一致 운동이 시작된 것은 메이지(明治, 1868-1912) 시대로, 메이지 이전에도 ‘言’과 ‘文’ 사이의 거리감에 대해서 인식을 하였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거리감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⁸⁾ 따라서 메이지 시기에 시작된 언문일치 운동은 ‘言’과 ‘文’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연숙(2005: 324)에 따르면 “일본의 한문은 한자를 읽는 순서를 나타내는 기호와 한문에는 없는 어휘 활용을 표시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한문을 일본어식 신택스(syntax)로 변환시켰다. 언뜻 보기에는 한문이지만, 읽는 방법은 일본어인 ‘漢文訓讀體가 바로 그것’이며³⁹⁾, 그 외에도 여러 文體⁴⁰⁾가 병존하고 있었다⁴¹⁾. 또한 정부 포고문과 법령에 많이 채용했던 독

언중들이 사용하는 구어체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언문일치 운동이 전개되었다.

- 37) 이연숙(2012:50-51)에서는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일본과 한국의 한자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일본의 ‘한자문제’는 우리보다 더 복잡했다. 우리나라에서 한자는 한문을 표기하기 위한 문자였고, 따라서 한자와 한글의 대립은 한문과 조선어의 대립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어의 경우 한자의 훈독과 한문훈독체라는 문체로 한자 자체를 일본어 체내로 녹여냈고 따라서 일본어화한 한자를 일본어와 분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은 순수한 한문을 유지하는 것과 한자를 폐지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한자 제한’이라는 발상을 하게 되었다.
- 38) 이연숙(2005: 323-324)에서는 ‘언어의 자연성’에서의 ‘자연’은 사전적 의미의 ‘자연(自然)’이 아니라 역사적 규범이 퇴적되어 그 기원이 망각되었을 때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 39) 이는 우리의 ‘吏讀와 비슷한 표기 방법이다. 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두’는 漢文에 비해 주변 현상이었음에 반해 일본의 ‘한문훈독체’는 漢文의 正統이었다.
- 40) ‘文體’는 혼히 문학에서 말하는 ‘문장의 개성적 특색’의 의미를 갖는데, 일본 문학의 문체는 표기법에 의해서도 차이를 가졌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문체’는 표기법의 차이를 통한 문학 갈래들 사이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 41) 헤이안(平安) 시대의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 가미쿠리(鎌倉) 시대의 ‘헤이케 모노가타리(平安物語)’, 에도(江戸) 시대의 게사쿠(戯作) 등의 속문학은 각기 다른 문체를 가지고 있었다.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는 한자어를 거의 쓰지 않는 ‘와(和)문체’이다. ‘와문체’란 헤이안 시대에 주로 여자들이 히라가나를 사용해서 쓴 이야기, 일기 등에서 사용되는 문체이다. 헤이케 모노가타리(平

특한 한문절충체가 있었다. 즉, 근대가 시작될 무렵의 일본에서는 漢文을 이용한, 다양한 문체들이 사용되었으며, 단일한 ‘文’ 양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言’ 또한 마찬가지여서, 지역·계급 등에 따라 ‘言’의 양식 또한 다양하게 갈라져 있었다. 이렇듯 일본의 ‘言’과 ‘文’은 메이지 초기에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서구의 문장을 번역하면서, 서구의 문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쓰는 말들로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서구의 문장 번역을 자신들의 언어생활에 투영하면서 일본어에서의 言과 文의 불일치에서 오는 불편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언문일치는 먼저 문명화되고 선진화된 서구를 좇으면서 ‘文明開化’, ‘西歐化’, ‘改良’의 조건으로서 ‘言文一致’가 제기되었다. 다만, ‘言文一致’를 추구하면서 일본 사회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 문제는 일본어에서의 ‘言’과 ‘文’의 표준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연숙(2005: 327)에 따르면 메이지 초기 일본어에서의 ‘言’은 전혀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도쿄어(東京語)는 아직 표준어의 위치에 오르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문자화를 해야 할 대상이자 표준형이 될 수 있는 ‘言’, 곧 표준형 말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에다 가즈토시(上田萬年, 1867-1937)는 당시 독일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국어(독일어) 개량운동이 행해지는 것을 보고 1894년 귀국하여 표준어에 의한 국어 통일을 주장하였다. 이를 계기로 ‘國語⁴²’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되어 ‘言文一致’ 운동 또한 새로운 차원에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⁴³ ‘언문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에서 제정한 표준 ‘國語’를 ‘言’의 수준까지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책들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근대 일본어의 역사는 이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어 갔다.⁴⁴

安物語)는 와문체에 한자어를 섞어 쓴 한문절충체이다. 게사쿠(戯作)는 속어를 많이 쓴, 거칠고 소탈한 문체로 에도 중기 이후 발달한 소설류에 특징적으로 나타난다(이연숙, 2005: 324-325).

42) 본고에서는 일본의 국어와 우리의 국어를 구분하기 위해 일본의 국어는 ‘國語’로 우리의 국어는 ‘國語’로 구분하여 표기하고자 하며, 일반적인 대상일 때는 ‘국어’로 구분하여 표기하고자 한다.

43) 여기에는 일본 정부가 일본 전국의 ‘言’을 통일시킨다면, ‘文’과 ‘言’을 일치시키는 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다.

44) ‘언문일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일정한 언어표준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淸日戰爭에서의 승리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의식을 강화시켰다. 서양보다 ‘언문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고민하던 일본은 중국과 조선보다 ‘언문일치’가 빨리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日本優越意識’을 鼓吹하였다. ‘언문일치’가 일본이 서양과 같은 列強의 대열에 들어갔다는 大國意識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일본의 ‘언문일치’는 국가의 언어정책 속에서 道具化 되어갔다. 국민통합과 국가의 強大化를 위해 ‘언문일치’를 해야 한다는 논점이 表面化되면서 ‘언문일치’는 국가의 언어 정책, 특히 표준어 정책 안에 자리 잡게 된다(이연숙, 2005: 339-340). 이런 점에서 서구 사회의 ‘언문일치’와 일본에서의 ‘언문일치’는 그 성격과 방향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단적으로 서구사회가 좀 더 시민 중심의 ‘언문일치’였다면, 일본의 그것은 좀 더 국가 중심의 것이었고, 서구 사회에서의 근대적 의미의 언문일치는 ‘언어의 규범화’의 의미를 내포한 것이라면 일본의 그것은 제국주의를 지향한 ‘국가의 강대화’ 이데올로기를 내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国語 정책 중에서 표준어 제정은 가장 주요한 작업으로 다루어졌다. 国語 정책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각 지방의 방언들이 亂立하는 상황을 유일한 ‘国語’가 지배하는 상태로 바꾸는 것이었고,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학교교육을 통한 方言의 教正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일본에서는 ‘言’과 ‘文’을 일치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言(=방언)’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는 倒錯된 논리를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근대 일본의 ‘国語’ 정책의 방향이 확정되면서 일본의 언문일치는 国語 정책의 한 요소로 편입되었고, ‘언문일치’라는 용어는 점차로 ‘구어체’라는 새로운 용어로 대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논의된 표준어 정책이 식민지 동화교육의 기본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본 국내의 지방방언에 대한 표준어 정책이 바다를 건너가 식민지에 적용되었을 때, 그

언어표준화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찍이 國字改良보다는 ‘언문일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언문일치’보다 학교의 標準語 교육을 우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발생한 것이다(이연숙, 2005: 339)

것은 国語 정책을 통한 타민족의 억압, 이민족 동화정책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이연숙, 2005: 342). 즉, 제국주의를 지향했던 일본의 ‘언문일치’는 식민지에서의 타민족의 억압, 이민족 동화정책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서 제국주의를 완성시키고 유지시키는 하나의 정책이 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언문일치’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것이 선진화된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즉, ‘文明開化’의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이다.⁴⁵⁾ 일본에서의 서구화·문명화·선진화의 기류는 ‘言’의 일치와 ‘文’의 일치에 대한 갈망을 촉진시켰으나,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서구 사회의 그것과는 다르게 국가 또는 제국주의의 정립과 확장의 도구로써 ‘언문일치’의 기능을 제한하였던 것이었다.

2. 우리의 언문일치

우리의 ‘언문일치’ 운동은 서구 문명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과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⁶⁾ 일본과 접촉하기 전, 조선 시대는 중국이라는 문명국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하던 시기이므로 조선의 입장에서는 문명국의 문자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입으로는 조선어를 구사하지만, 글은 한문을 쓰는 독특한 語文 生活을 영위하고 있었다.⁴⁷⁾ 이러한 언어적 이중구조를 개화기 조

45) 서구 사회의 자생적 현상과 대비되는 점이기도 한다.

46) 고야스 노부쿠니(子安宣邦, 2008: 43-44)에 의하면 동아시아의 근대는 이 지역에 있어서 새로운 ‘네이션(nation)’의 개념이 창출되면서 근대화가 추구된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에 걸친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 동아시아에서의 저마다의 ‘민족’이라는 개념은 언어적 동일성 의식과 함께 갖가지 사건을 겪으며 형성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인 自言語 의식의 성립과 함께 漢字 또는 漢文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자연어에 있어서 他者性을 띠는 漢字에 대한 문제는 일본이나 우리 양측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였다. 근대 이전에 문명의 전이를 언어적으로 매개한 것은 漢字 또는 漢文이었으므로 동아시아 근대가 구성하는 문제로서의 漢字論은 언어론적인 문제이면서 문명론적인 문제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47) 다이글로시아(Diglossia)는 일반적으로 한 언어의 두 변종 또는 두 언어가 사회적으로 층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현희 외(2014: 231)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조선의 언어적 상황을 ‘다이글로시아(Diglossia)’나 ‘양층언어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회 계층과 상관없이 상층과 하층 계급 모두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종류의 언어가 공존하였던 것은 아니며, 다만 상층에서 사용하는 문자(漢

선의 지식인들은 ‘言文二致’라고 지칭하였으며, ‘言文不一致’로 일컬기도 했다. 중국과 조선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言’과 ‘文’이 하나인데, 조선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하였던 것이다.⁴⁸⁾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인 박지원의 ‘言’과 ‘文’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면 당대 지식인의 ‘言’과 ‘文’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박지원은 热河日記 (1737) 「避暑錄」에서 조선은 말로부터 글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말은 말대로, 글자는 글자대로 존재한다고 하였다. 말과 글이 각각 존재하므로 글을 따로 배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말과 글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 글을 아는 것이 곧 말을 아는 것이었다. 당시 조선은 중화사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으므로 중국은 말과 글이 일치한다는 환상⁴⁹⁾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현희 외, 2014: 231-236).⁵⁰⁾ 이러한 조선 시대의 인식은 서구의 신문명이 들어오면서, 갑오개혁, 청일전쟁, 러일전쟁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면서 점차 바뀌어 갔다.

한편, 우리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文明改造의 기류 속에서 ‘어문질서의 근대적 개편’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두드러지게 나타난 경향 중의 하나는 표의문자보다 표음문자를 앞에 두는 것이었다.

표음문자를 ‘문명한 시대에 만들어 쓰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⁵¹⁾는 당시 이미 근대화를 이루어 문명개화에 성공한 서구의 문자가 표음문자라는 판

字)와 하층에서 사용하는 문자(한글)가 달랐고, 문자를 언어의 하위개념으로 본다면 ‘다이글로시아(Diglossia)’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48) 이때 ‘言’과 ‘文’이 하나라는 말은 중국은 중국어를 중국 문자로 표기하였다는 의미이다. 중국이 ‘언문일치’를 이루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49) “중국 사람은 말이 곧 문자이다. … 문자로 말을 한다.”(中國之人 言語卽文字也 … 而皆以文字爲語) <황운석, 頤齋亂藁 卷1(1779)>

50) 그러나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言’과 ‘文’이 하나라는 개념은 성립이 불가능에 가깝다. ‘말하는 대로’ 기록하는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 까닭이다. ‘음성’과 ‘문자’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물이 깊어서 건너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반드시 중국처럼 水深度不得이라고 적어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그렇게 적어야만 ‘言’과 ‘文’이 하나인 완벽한 표기가 되는 것이라 여겼다.

51) “大概로 計하면 象形文字는 古昔 未開한 時代에 制用했던 것이오 記音文字는 近世 文明한 時代에 制用하는 것이니 象形文字는 支那文字과 如한 種類들이요 記音文字는 我國正音과 如한 種類들이더라.” <주시경, 「必尙自國文言」(1907)>

단에서 나온 것이다.⁵²⁾ 따라서 근대적 어문개혁의 대립지점은 언어보다는 문자와 문장일 수밖에 없었다. 漢文을 文語로 사용했던 우리의 어문 생활에서 언문일치의 어문생활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國文’으로의 표기문자(또는 문장)의 교체와 문장 쓰기의 규범화는 어문 개혁의 일차적인 목표가 되었다.⁵³⁾

甲午改革(1984~1986) 이후 大韓帝國 時期(1897~1910) 우리 사회에는 세 가지의 表記 양식이 존재하였는데, 각각 국문 표기체, 국한문 표기체, 한문 표기체⁵⁴⁾가 그것이다. 이때 일본과 서구의 ‘言文一致’된 문장들을 접하면서 漢字를 버리고 國文을 專用하자든가, 國漢文 混用을 채택하자 등의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일본인과 교류를 해오던 유학생들과 일본인들은 일본과 유사한 국한문 표기체를 주장하였으나 국한문 표기체가 완전한 언문 일치를 달성하기 위해 결국에는 버려야 할 양식이라는 테에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의 鈞吉濬의 글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西遊見聞』이 완성된 며칠 뒤에 친구에게 보이고 비평해 달라고 하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참으로 고생하기는 했지만, 우리글과

52) 이처럼 표음문자를 보다 발전된 문자로 보는 인식은 韓·中·日 3국에서 모두 발견된다. 김상원 (2006: 257)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문명개화를 위해 서구와 같이 로마자를 國字로 쓰자는 ‘로마자 국자론’이 제기되었고, 중국에서는 晚清 시기인 19세기 말에 漢字를 폐지하고 중국문자를 로마자를 이용한 병음 문자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53) 이런 시대적 상황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우리의 개화기에 ‘國語’라는 용어보다 ‘國文’이라는 용어가 더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4) ‘국문체’는 표기의 방법으로서 한글 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체’는 ‘style of writing’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문체’의 ‘문체’와는 당연히 다른 것이고, 만약 ‘국문체’라고 명명한다면 ‘문체 (style of writing)’와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 ‘국문표기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으나 ‘표기법’은 의미상 ‘맞춤법’에 가깝기 때문에 앞에서 기술한 ‘국문체’의 의미와 전혀 다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분명히 구분하고자 관례적으로 ‘국문체’, ‘국한문체’, ‘한문체’로 지칭하던 것을 각각 ‘국문 표기체’, ‘국한문 표기체’, ‘한문 표기체’로 부르고자 한다.

한편, ‘국한문 표기체’의 경우, 기존 논의들에서는 ‘國文’과 ‘漢文’을 혼용한 것과 ‘한글’과 ‘漢字’를 혼용한 것을 모두 아울러서 가리키고 있다. ‘國漢文’의 ‘文’을 고려한다면 ‘국한문 표기체’는 ‘國文’과 ‘漢文’을 혼용한 것만을 의미해야 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기존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국한문 표기체’는 기존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國文’과 ‘漢文’을 혼용한 것과 ‘한글’과 ‘漢字’를 혼용한 것을 모두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자 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에서 다루고자 한다.

한자를 섞어 쓴 것이 문장가의 궤도를 벗어났으니, 안목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방과 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첫째, 말하고자 하는 뜻을 평이하게 전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으니, 글자를 조금만 아는 자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략) 셋째, 우리나라 七書_{七書}解의 기사법을 대량 본받아서 상세하고도 분명한 기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략) 우리나라의 글자는 우리 선왕 세종께서 창조하신 글자요, 한자는 중국과 함께 쓰는 글자이니, 나는 오히려 우리 글자만을 순수하게 쓰지 못한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외국 사람들과 국교를 맺었으니, 온 나라 사람들이 상하 귀천이나 부인과 어린이를 가릴 것이 없이 저들의 형편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서투르고도 결끄러운 한자로 얼크러진 글을 지어서 실정을 전하는데 어긋남이 있기보다는, 유창한 우리글과 친근한 말을 통하여 사실 그대로의 상황을 힘써 나타내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⁵⁵⁾

『西遊見聞』(1895)에서 유길준은 완전한 언문일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한계와 완전한 언문일치를 위해서는 국문만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다. 국문만으로 글을 쓸 수 없음을 자조하는 듯한 유길준의 말은, 당시 지식 사회의 주류가 ‘漢字에 익숙한 계층’이고 漢字가 정확한 기록의 방편이기 때문에 國漢文으로 출판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국한문 표기체를 탈피해야 할 관습의 대상으로 보는 반성적 인식을 보여준다.⁵⁶⁾

한편 甲午更張(1894)을 계기로 신식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國字普及運動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국어운동, 국문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전까지 ‘方言, 俚言, 俗語’ 등으로 불리던 우리말은 이를 계기로 ‘國語’라는 명칭을 획득하였고, 한글로 기록한 글도 ‘國文⁵⁷⁾’으로 일컬어지게 되었다. 특

55) 유길준 著, 혁경진譚(2004: 25-27)에서 인용.

56) 김채수(2002: 13-16)에 의하면 언문일치 운동은 「漢城旬報」(1883)의 국한문 표기체의 채용 시도를 통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888년 博文局 폐지로, 「漢城旬報」도 폐간되어 국한문 표기체가 더 이상 일반화되지 못하다가 청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들이 정착하고, 1881년 도쿄에 유학한 유길준이 『西遊見聞』을 국한문 표기체로 간행하면서 이 표기체가 더욱 일반화되었다.

히 徐載弼의 「독립신문」 창간은 언문일치 운동의 수단으로 국문 표기체를 선택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김채수, 2002: 16-17).

한편, 이러한 국문 표기체의 확대는 국문이 바르게 쓰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既述한 것처럼, 근대의 언문일치는 문자와 문장의 규범화⁵⁸⁾와 관련이 있다. 주시경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국한문 표기체와 국문 표기체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쟁하였던 것도 그러한 과정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⁵⁹⁾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한 요건이 바로 ‘자국어’의 형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강점에 의한 식민지로의 몰락이라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국어·국문 운동으로 진행되던 우리의 언문일치운동은 또 다른 전환기를 맞게 된다.⁶⁰⁾

한편, 이러한 국한문 표기체나 국문 표기체는 당시 일반서민들이 사용하던 口語와는 거리가 멀었다. 따라서 언문일치운동은 그러한 문장들을 당시 일반 서민이 쓰던 구어를 통해 재구축해야 한다는 속어운동으로 전개

57) 소위 개화기 시기의 ‘國文’은 때로는 ‘漢字’와 대립하는 개념이었고, 때로는 ‘漢文’과 대립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國文’은 ‘한글’과 ‘한글로 쓰인 문장’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었다.

58) 미쓰이 다카시(三ツ井 崇, 2005: 361-362)에 따르면 어떤 언어가 ‘국어’로서의 자격을 획득한다는 것은 해당 언어가 서기 언어(written language)로서의 규범을 획득하고 ‘nation’을 대표하는 통일적 표준형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미쓰이 다카시(2005)에서는 ‘규범화’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규범화는 ‘국민’ 또는 ‘민족’ 통일을 위한 방법으로 그 자체가 근대적 현상이었다. 그에 따르면 근대의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 있어서 종주국인 일본의 언어는 조선의 일상생활에 군림하였고, 따라서 피지배 언어인 조선어는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 하나의 수단이 바로 피지배 언어의 규범화였다. 그리고 그 규범화의 과정에는 ‘언문일치’가 포함된다.

다만, 미쓰이 다카시(三ツ井 崇, 2005)의 이러한 관점은 지극히 일본 측의 관점이 강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피지배 언어인 조선어는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피지배 언어의 규범화를 추구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조선어를 쓰는 민족의 입장에서는 조선어를 영구한 일본어의 피지배 언어로 방치할 수 없었고, 더욱이 조선과 일본의 민족이 동일 민족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선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조선어의 규범화를 추구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59) 서구 여러 국가와 일본에서의 언문일치와 문어의 규범화를 통해 이룬 성과를 참조하면, 대한제국 시기에 그들이 언문일치를 위하여 노력한 데에는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60) 일제강점기에서는 ‘국어’가 일본어 즉 ‘國語(こくご)’를 가리쳤기 때문에 언문일치를 위한 노력 또한 ‘國語’의 정립이 아닌 ‘國語’의 지역 방언의 위치에 머무르던 조선어 문자와 문장의 구체적인 규범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되어 나갔다(김채수, 2002: 39).⁶¹⁾⁶²⁾

정리하자면, ‘언문일치운동’은 단순히 말과 글을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개량하고, 문법을 정리하여, 즉 언어 규범화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만드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서구의 ‘민족’이 自己의 言語 사용과 思想의 공유를 통해 自生的 으로 想像되었듯이, 우리의 ‘언문일치’ 운동은 우리 민족이 사용해 오던 고유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들의 사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민족’의 정신과 정서를 확립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구 사회가 지역어 문법서를 편찬하고 지역어 사전을 편찬하는 등 그 지역(나라)의 언어를 통일하고 규범화하듯이 우리의 언문일치 운동은 우리 민족이 사용해 오던 말을 통일⁶³⁾ 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집단을 구성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즉, ‘언문일치’ 운동을 통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이 민족의식을 각성시켰고, 결과적으로 ‘언문일치’는 ‘민족’을 유지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한 예로 국문 표기체 신문과 성경의 발간을 들 수 있을 듯하다.⁶⁴⁾

『독립신문』의 경우 1896년 창간되었을 때부터 4면 중 3면을 국문으로 표기하는 등, 당대로서는 파격적인 편집을 시도하였다. 1896년 4월 7일 이

-
- 61) 김병문(2013: 73)에서는 우리나라 언문일치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대략 세 가지 측면의 문제가 개입된다고 하였다. 첫째는 문자와 관련된 것으로, 漢字로부터 탈피하는 것이고, 둘째는 문장의 통사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古典 漢文 문장으로부터 ‘國語’의 문장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며, 셋째는 문장의 종결 형태를 ‘國語’에 맞게 바꾸는 것이었다. 이는 김채수(2002)에서 정리한 脱漢文운동, 國文운동, 俗文운동의 세 단계와 상통하는 것이다.
- 62) 여기에서 국어학계와 문학계에서 ‘언문일치’를 달리 바라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백채원(2014: 77)에 따르면 국어학계에서는 한국어를 한문이 아닌 국문으로 적는 것을 ‘언문일치’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고, 문학계에서는 구어를 문장에 반영하는 것 혹은 이광수, 김동인 등의 작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체를 가리켜 ‘언문일치’라고 부른다.
- 63) 여기서의 ‘통일’은 규범화를 의미한다. 즉, 개화기 시기의 지식인들에 의한 우리말 문법서 편찬과 문체(표기체) 개량 등이 이에 해당하며, 더 나아가 일제강점기 국어학자들에 의한 사전 편찬과 표준어 제정 등의 노력도 해당한다.
- 64) 억명의 심사위원께서 ‘언문일치’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상과 감정을 공유하고 ‘민족’이라는 개념을 상상하게 되었고, 이렇게 상상된 ‘민족’을 기초로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언문일치를 통해 구성원들이 사상과 감정을 공유하였다라는 주장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문 표기체 신문과 한글 성경을 한 예로 들어 심사위원의 지적에 대해 보완하고자 한다.

후부터 1896년 7월 2일까지의 「독립신문」의 주요 논조가 주로 ‘민족 계몽’ 이었음을 볼 때, 이러한 표기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는지 짐작이 가능하다. 이는 國譯 「聖書」 또한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1800년대 후반 선교사들은 당시 우리의 문어와 구어에서 나타나는 이중체계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聖書」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표기하였다. 이는 문해력이나 문자 해독력이 떨어지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함이었다. 즉, 「독립신문」은 민족 계몽을 위해, 「聖書」은 선교를 위해 국문 표기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국문 표기의 사용에는 지식층을 넘어 일반 대중 전체가 글을 읽고 이해하게 함으로써 특정한 사상과 감정이 공유되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언문일치’를 통한 사상과 감정의 공유를 꾀한 것이다. 서양에서의 ‘민족’ 개념의 형성 과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사상과 감정의 공유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민족’ 개념의 확장과 확립에 일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언문일치’가 되기 전 동·서양은 모두 근대화가 되지 않은 사회였고, ‘文’은 오로지 상위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향유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언문일치’는 그러한 극소수 중심의 사회를 대다수 구성원 중심의 사회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언문일치’를 통해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언어로써 사상과 감정을 공유하여 ‘민족’을 상상하게 되었고, 이렇게 상상된 ‘민족’을 기초로 근대 국가를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우리의 ‘언문일치’는 그 형성 과정을 고려하면 서구 사회의 그것과는 다른 점이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러한 ‘언문일치’의 흐름이 사회 및 경제 구조의 변화와 함께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경우는, 당대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또한 이를 통한 부국강병의 실현을 위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과 우리의 ‘언문일치’ 운동의 공통점이기도 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의 ‘언문일치’ 운동은 일본의 그것과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 朝鮮 末부터 大韓帝國 時期까지 우리의 ‘언문일치’ 운동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근대 국가의 형성을 목적으로 수행되었고 이는 일본의 언문일치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언문일치는 서구화·문명화·선진화의 기류 속에서 점차 국가가 개입하였고, 서구사회와는 다르게 국가 또는 제국주의의 정립과 확장의 도구로써 이용되어 갔다. 반면,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을 목적으로 수행되던 우리의 언문일치는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우리의 國語가 국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근대화의 여정을 향하던 우리의 언문일치는 중도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언문일치’ 운동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시키고, 더 나아가 민족의 생존을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 전개되었다.

IV. 결론

‘民族’ 개념은 日帝强占期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있어 매우 큰 영향력을 미쳐온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自生的으로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서구의 ‘nation’ 또는 ‘volk’의 번역어로 인쇄술의 발달로 인한 종교 공동체의 붕괴, 봉건제도의 몰락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발달하였다. 즉, ‘민족’ 개념의 형성은 다분히 근대적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민족’ 개념은 초기에는 동아시아 삼국(한·중·일)을 한 데 묶은 개념이었다. 그러나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갈등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점차 중국과 동아시아와 구별되는 ‘自己’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후에 비로소 우리 사회에 있어서 ‘민족’은 한반도에 거주하면서 동일한 생각과 감정, 언어를 공유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서구의 신문명과 주변 열강 간의 전쟁을 경험하면서 부국강병을 위해 ‘言’과 ‘文’을 일치시켜야한다는 집단적인 의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시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한자 중심의 담론을 탈피한 ‘어문질서의 근대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민족’ 개념은 우리가 주권을 상실하는 순간부터 더욱 힘을 얻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언어’는 ‘민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근대적 개혁에 있어서 어문개혁의 대립지점은 언어보다는 문자와 문장

일 수밖에 없었다. 한문을 문장어로 썼던 어문 생활에서 언문일치의 어문 생활로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표기문자의 국문으로의 교체와 문장 쓰기의 규범화는 어문 개혁의 일차적인 목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문질서의 근대적 개편은 ‘大韓帝國期’와 ‘日帝强占期’에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다. 大韓帝國期의 言文一致로의 노력은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 하에서는 ‘국어’가 일본 어를 가리켰기 때문에 언문일치를 위한 노력 또한 ‘국어’의 정립이 아닌 조선어 문자와 문장의 구체적인 규범 확립의 양상으로 흐른다. 그리고 이러한 ‘언문일치’에의 노력은 민족적 정체성을 규명하는 연구의 일환이 되었다. 우리의 ‘언문일치’는 朝鮮 末, 大韓帝國期, 日帝强占期를 거치면서 국민국가 형성의 도구였다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도구로써 사용된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은진·조재형, 「‘민족’ 개념과 ‘국어’ 개념의 형성 관계에 대한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28,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8.
- 권보드래, 「동포와 역사적 감각 – 1900–1904년 ‘동포’ 개념의 추이」,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2006.
- _____, 「근대 초기 민족 개념의 변화 – 1905–1910년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3,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07.
- 김미형, 「한국어 언문일치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글』 256, 한글학회, 2004.
- 김병문, 「언어적 근대의 기획 – 주시경과 그의 시대」, 소명출판, 2013.
- 김영란, 「한국민족주의의 역사 분석을 위한 이론서설」, 『동방학』 19,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0.
- 김채수, 「한국과 일본에서의 언문일치운동의 실상과 그 의미」, 『일본연구』 1,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2002.
- 김현숙, 「한말 ‘민족’의 탄생과 민족주의 담론의 창출: 민족주의 역사서술을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5,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4.
- 노연숙, 「개화계몽기 국어국문운동의 전개와 양상 – 言文一致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0,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07.
- 박찬승, 「한국에서의 민족 개념의 형성」, 『개념과 소통』 1, 한림과학원, 2008.
- _____, 『한국개념사총서 5 민족·민족주의』, 소화, 2010.
- 백동현, 「라·일전쟁 전후 ‘民族’ 용어의 등장과 민족인식」, 『한국사학보』 10, 고려사학회, 2001.
- _____, 「대한제국기 한국민족주의의 형성과 그 특성 – 지식인층의 민족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 백채원, 「20세기 초기 자료에 나타난 ‘언문일치’의 사용 양상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66, 국어국문학회, 2014.
- 유길준 著, 허경진 譯, 『서유견문』, 서해문집, 2004.
- 이대희, 「민족의 개념 – 국민과 종족 사이」, 『21세기정치학회보』 25-3, 21세기정치학회, 2015.

- 이병기, 「국어」 및 「국문」과 근대적 민족의식, 『국어학』 75, 국어학회, 2015.
- _____, 「국어」는 근대적 기본 개념이인가?, 『인문논총』 72, 서울대학교 인문학 연구원, 2015.
- 이보경, 『근대어의 탄생–중국의 백화문운동』, 연세대출판부, 2003.
- 이연숙, 「일본에서의 언문일치」,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5.
-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조합 공동체 소나무, 1999.
- 임형백, 「소설에서 근대어문의 실현 경로–동아시아 보편문어에서 민족어문으로 이행하기까지」, 『흔들리는 언어들』, 2008.
- _____, 「한국인의 민족개념 형성에서 중화사상의 수용과 변형」, 『다문화와 평화』 6,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 2012.
- 임형태, 「20세기 전후 한국에 있어서 문명 개념」,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 장문석, 『비타와티바23 민족주의』, 책세상, 2011.
- 장윤희, 「近代 移行期 韓國에서의 自國語 認識」, 『한국학연구』 30,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3.
- 한기형, 「매체의 언어분할과 근대문학」,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 대동문화 연구원, 2008.
- 한영균, 「언문일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그 구현 – 국한혼용문의 현대화 과정과 관련하여-」, 『언어 사실과 관점』 41권 0호,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2017.
- 홍종선, 「근대 전환기 개화 지식인의 ‘국문/언문’에 대한 인식과 구어체 글의 형성」, 『우리어문연구』 54, 우리어문학회, 2016.
- 허재영, 「근대 계몽기 언문일치의 본질과 국한문체의 유형」, 『어문학』 114, 한국어문학회, 2011.
- 가라타니 고진 著, 박유하 譯,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2010.
- 고야스 노부쿠니 著, 임명신 譯, 「근대 일본의 한자와 자국어 인식」,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 미쓰이 다카시 著, 김인택 譯, 「식민지시기 조선에서의 언어운동 전개와 그 성

- 격』,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8.
- 베네딕트 앤더슨 著, 윤형숙 譯, 『상상의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1991.
- 베네딕트 앤더슨 著, 서지원 譯, 『상상된 공동체 – 민족주의의 기원과 보급에 대한 고찰』, 도서출판 길, 2018.
- 앙드레 슈미드 著, 정여울 譯,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07.
- 앤서니 D. 스미스 著, 강철구 譯,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 근대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모색』, 용의 금, 2012.
- 에릭 존 흉스봄 著, 강명세 譯, 『178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창비, 1994.
- 이연숙 著, 이재봉 ·사이키 카쓰히로 譯, 『말이라는 환영 – 근대 일본의 언어 이데올로기』, 십산, 2012.
- 이연숙 著, 고영진 ·임경화 譯, 『국어라는 사상 – 근대 일본의 언어 인식』, 소명 출판, 2006.
- 神甲孝平, 「文章論ヲ讀ム」, 『東京學士會院雑誌』 7-1, 東京學士會院, 1885.
- 章太炎, 「國故論衡·文學總略」, 『中國文論選』(近代卷下), 江蘇文藝出版社, 1996.
- イ・ヨンスク, 「國語」という思想, 岩波書店, 1996.[이연숙 저, 고영진 ·임경화 역 (2006)에 재수록.]
- Anthony D. Smith, The Ethnic Revival in the Modern Worl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앤서니 D. 스미스 著, 강철구 譯 (2012)에 재수록]
- Benedict 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London: Verso, 1983.[베네딕트 앤더슨 著, 윤형숙 譯(1991)에 재수록]
- Steven Grosby, Nationa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Abstract>

The formation of ‘nation’ concept and ‘the unity of speech and writing’

Kang, Eun-jin·Cho, Chae-hyu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concept of ‘nation’ and the influx into Korea. We will also examine how the concept of ‘nation’ is related to ‘the identity of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 Ultimately, through these discussions, we want to identify our language modernization process.

According to Anderson(1983/1991), ‘nation’ is a political community imagined to have limited and sovereign rights. ‘The unity of speech and writing’ movement allowed us to express our thoughts and feelings in our own language and to establish the spirit and emotion of the ‘nation’.

Before ‘The unity of speech and writing’, ‘writing’ was only the property of the upper class in the feudal society, but ‘The unity of speech and writing’ played a role of converting a very few-oriented society into a majority-oriented society. Through ‘The unity of speech and writing’, the members of society have imagined ‘nation’ by sharing their thoughts and feelings as their language, and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modern national nation based on this imagined ‘nation’.

However, our ‘The unity of speech and writing’ was made up of a small number of intellectuals as a means of accepting Western

civilization, and under the rule of Japan, our ‘The unity of speech and writing’ movement was developed to maintain the identity of the ‘nation’ rather than the formation of the state.

Key words : history of concept, nation, The unity of speech and writing, Linguistic modernization, Normalization of language

강은진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58231) 전남 니주시 나주호로 830-2

전자우편: ght0122@hanmail.net

조재형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chochaehyung@naver.com

이 논문은 2019년 3월 12일 투고되어 2019년 4월 10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9년 4월 16일에 게재 확정 통보하였음.